

‘복합위기’ 총력 대응... 서민 부담 줄이고 산업 방파제 세웠다

26.2조 규모 1차 추경안 의결

행안부 9.5조 최대 규모 편성
나프타·비축유 확보 지원 강화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확대
청년취업·창업예산 등 확충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불안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민생 안정과 산업 충격 완화, 공급망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기후부·농식품부 등 주요 부처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물가·산업 충격 대응과 민생 안정을 핵심 목표로, 주로 현금성 지원과 산업 대응 예산이 포함된 ‘복합 위기 대응형 추경’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물가 상승 대응 민생 안정 ▲중동 전쟁발 공급망·수출 충격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 9조5240억원, 산업통상부 9241억원, 중소벤처기업

수출기업 중동대응 2026 추가경정예산안

피해 기업·산업 지원 +1.1조원

수출기업

- 물류애로 해소차원, 수출바우처 +0.1조원
-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 추가 구축 지원 380개사
- 수출 정책금융 7.1조원 공급
- 중동수출이 어려워진 기업, 해외인증 획득 확대 +100억원

피해산업

- 관광업계 :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 3000만원
- 관광상품 개발·홍보 지원 306억원
- 석유화학·철강산업 : 기술 컨설팅,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 확대 +70억원



공급망 안정화 +0.7조원

석유화학 산업

- 나프타 : 수입비용 일부 지원 0.5조원
- 석유 : 비축물량 130만배럴 추가 확보 0.2조원
- 석유 불법거래 감시 통합관제센터 165억원
- 유가공개 시스템 고도화 20억원
- 희토류 : 재자원화를 위한 시설·원료 확보 81억원
- 요소 : 중동 의존도가 높아, 수입선 다변화 39억원

자료/기획예산처

부 1조9374억원, 고용노동부 5386억원, 기후부 5245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658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은 행안부에 배정돼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쓰인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직접 완화하기 위한 민생 대응 성격이다. 행안부는 9조524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총 4조8252억원이 투입되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 등 지역별 차등 지급된다. 또 지방교부세 4조6793억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9241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나프타와 비축유 등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치다. 나프타 수급 지원 4695억원, 석유 비축 확대 1584억원, 희토류·요소 공급

망 대응 120억원 등 에너지·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에 6642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또 수출기업 긴급 지원 1459억원, 제조업 AI 전환 1140억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석유화학 업계 타격 완화와 공급망 대응을 위해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9374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수출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창업 확대, 제조업 AI 전환에 투입된다. 특히 수출 바우처 1000억원, 긴급경영자금 2500억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32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550억원, 모태펀드 1700억원도 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386억원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3866억원(72%)은 청년 취업 지원에 집중한다. 주요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 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

등이다. 특히 ‘쉬웠을 청년’ 증가에 대해 해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기후부 5245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 에너지 비용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바우처 102억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205억원, 전기화물차 보급 900억원, ESS 구축 588억원 등이다. 고유가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농식품부 2658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유류·비료 지원에 배정했다. 면세유 지원 78억원, 비료 지원 42억원, 사료 구매자금 650억원, 농축산물 할인 500억원 등 농업 생산비 상승 대응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대해 “고유가·공급망 불안·수출 둔화 등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민생 안정과 산업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수출피해 최소화·대체시장 확보 소상공인 지원·지방제조 AX 강화

중기부, 1조9374억 추경 편성

물류차질 대응 수출바우처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편성
소상공인 특별자금·보증 확충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중동 전쟁에 따른 수출 피해 중소기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 안전도 돕는다.

중기부는 1조9374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수출 중소기업 중동전쟁 피해 최소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 촉진 ▲지방 중소기업 인공기능 전환(AX)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대체 시장 확보를 뒷받침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 지원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교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도 2500억원을 더한다. 또 온라인 수출 지원에 122억원을 추가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1000억원 증액한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도 힘쓴다.

특별경영안정자금에 32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경기침체지역 및 재난피해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 청년사업자 등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기술

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00억원씩 출연해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246억원을 추가했다. 로컬 소상공인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과 전통 시장별 맞춤형 공동 마케팅 지원을 신설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의 자생력도 높인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선포한 만큼,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늘린다.

혁신 창업가를 발굴해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550억원을 배정했다.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판로 확보, 사업화 및 자금 지원이 늘어나고 재도약지원자금, 중소기업재기지원금 포함 재도전자들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테크 창업과 로컬 창업을 뒷받침하고 자 창업 도시와 연계된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활성화에 24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로컬 창업가 지원 사업에 603억원을 더한다. 초기 창업기업, 재도전자기업, 지역 소재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만들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에 1700억원을 추가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AX로 제조 경쟁력을 키운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o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가대표급 카드혜택의 시작

그라운드를 가리지 않는
ALL라운드 혜택

KB ALL 카드

YOU연한 라이프에
YOU용한 맞춤 혜택

KB YOU Prime 카드

꼭 필요한 교육
NEED에 집중 혜택

KB NEED Edu 카드

□ KB ALL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2만원(7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5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1만4천원(7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 KB YOU Prime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K-World(UB))) 3만원(7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2만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K-World(UB))) 2만4천원(7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 KB NEED Edu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2만5천원(7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8천원), 일반카드(국내외겸용(MSA)) 2만6천원(7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9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1만4천원(7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외겸용(MSA)) 2만원(7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9천원) ■ 연회비: 환율/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회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이례와 같이 적용함 - 일일 거래 연체 시 가내발생 정의 최소 기간(2개월) 유이자월부 수수료 적용 - 무이자월부 거래 연체 시 가내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 기간의 유이자월부 수수료를 적용 - 그외의 경우 정상이자율은 상환상 심사평정이율과 상호금융 기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일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계약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가내사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법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업법 시행규칙 제 2026-C26-02152호 (2026.02.13 ~ 2027.02.12)